

KMI

북한해양수산물리뷰

2020년 2호
JUN 30 2020

발간년월 2020년 6월 30일(2020년 2호)

발행인 장영태 총괄 윤인주 감수이성우 담당 진희권

자료문의 종합정책연구본부 북방·극지연구실

주소 49111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 301번길 26(동삼동)

발행처 한국해양수산개발원

TEL +82-51-797-4766 FAX +82-51-797-4759

www.kmi.re.kr

목 차

[현안 분석]	1
북중 무역의 추이와 전망	
이요셉(한국무역협회 남북협력실 과장)	
[현안 분석]	11
유엔패널보고서(S/2020/151) 해양수산 이슈와 전망	
윤인주(한국해양수산개발원 부연구위원)	
[인터뷰]	15
남북교류협력사업 전문 이행기구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양재석(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남북교류협력종합상담센터장)	
[북한 동향]	19
2020년 상반기 북한 해양수산 동향: 「로동신문 분석을 중심으로」	
[뉴스 요약]	25
2020년 2분기 북한 해양수산 소식	
[북한 알기]	35
북한의 수산물 수출	
[北] 리뷰	37
북중머니 커넥션	
한반도 평화와 중국	



[현안 분석]

북한 무역의 추이와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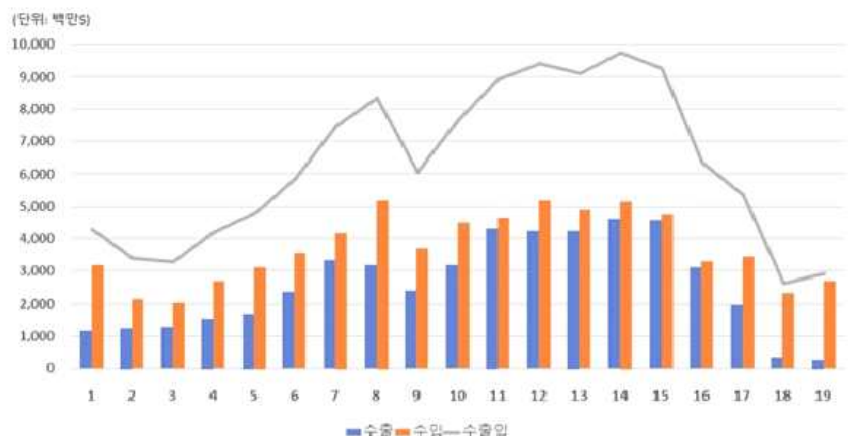
이요셉 (한국무역협회 남북협력실 과장)

1. 북한 무역 총액 추이

북한의 무역은 남북 반출입 합산 시 2001년 43억\$를 기록한 후 등락을 반복하며 대체로 증가하여 2015년 97.7억\$를 기록한 하였으나 강화된 대북제재로 2019년 29.5억\$ 수준으로 하락

- 2004년 개성공단 완공 후 남북교역 증가로 북한 전체교역 증가
- 2009년 북한의 2차 핵실험에 이은 유엔제재 강화(제1874호), 북중통계의 누락(8월~11월)으로 인해 2009년 북한 무역은 27.1% 감소한 60.9억\$ 기록
- 개성공단의 지속적인 성장과 북중교역의 증가로 인해 북한 무역은 2015년 역대 최고치인 97.7억\$ 기록
- 2016년 개성공단 가동중단과 2017년 연이은 핵/미사일 실험으로 강화된 유엔대북제재(2371호, 2375호, 2397호)로 북한 무역은 큰 폭의 감소세를 지속

〈그림 1〉 북한 무역 수출입 추이(2001~2019)



주: 2017년 이후 남북반출입은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이산가족행사 등 모두 비상업적 교역으로 제외
 자료: 한국무역협회 북한무역통계, 남북반출입통계

북한은 2001~2019년 평균 무역수지**- 11.4억\$를 기록하여 만성적인****무역적자 구조를 유지, 이는****① 수출상품 경쟁력 부족,****② 공산품 수입수요 증가에****일차적인 원인**

- 특히, 2017년 강화된 대북제재가 북한의 주요 수출품목인 석탄과 의류임가공품을 금수조치하여 수출 감소폭이 수입 감소폭을 상회, 무역수지는 -20억\$ 이상

〈그림 2〉 북한 무역수지 추이(2001~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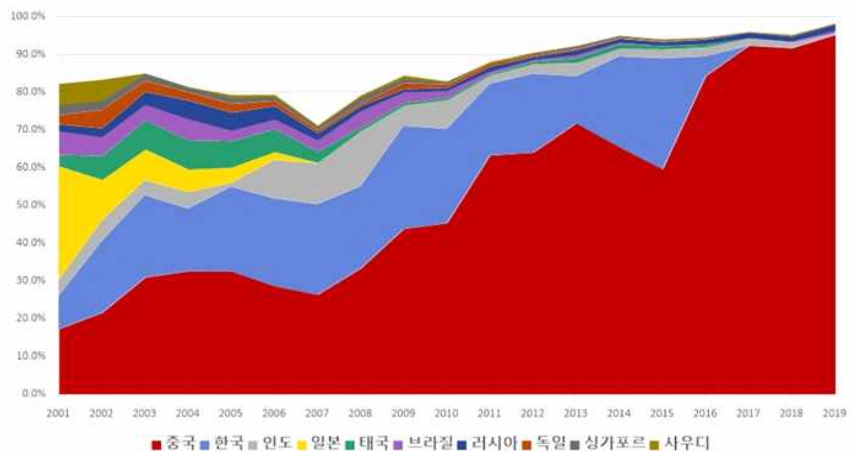
자료: 한국무역협회 북한무역통계, 남북반출입통계

II. 북한 무역 주요국가 추이

2001~2019년 북한 대외무역
상위 10개국의 비중 평균은
중국(52.6%), 한국(16.9%),
인도(4.4%), 일본(3.2%),
태국(2.6%), 브라질(2.34%),
러시아(1.9%), 독일(1.2%),
싱가포르(0.9%), 사우디(0.9%) 순

- 중국은 2019년 기준 95.2%로 대북제재가 강화될수록 더욱 높은 비중을 차지
- 한국은 개성공단 가동으로 2009년 27.2%까지 북한 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늘었으나 2010년 5.24조치와 개성공단 중단으로 현재는 상업적 교역기준 0%
- 일본은 2001년 30.1% 비중으로 북한 무역의 최대 상대국이었으나 납치자 문제와 대북제재로 2009년 이후 0%

〈그림 3〉 북한 무역 10대 국가 비중 추이(2001~2019)



주: 2017년 이후 남북반출입은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이산가족행사 등 모두 비상업적 교역으로 제외
자료: 한국무역협회 북한무역통계, 남북반출입통계

2019년 북한의 무역상대국은 대북제재로 무역총액은 모두 감소하였으나 중국의 경우 그 비중은 95.2%로 역대 최대를 기록. 그 외 국가들은 총액은 미미하나 러시아의 경우 2018년 대비 상승한 1.6%, 브라질 또한 전년대비 상승한 0.7%, 인도는 전년대비 하락한 0.4%를 기록. 그 외 아프리카, 중남미 국가들이 기존 동남아, 서구권 국가들의 대북제재 이행으로 인한 교역량 감소로 북한 무역에서 비중이 상대적으로 늘어남

북한의 무역 상대국은 국제기구 통계상 2001년 131개국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5년 이후 140여 개국 내외를 유지하였으나 강화된 대북제재로 2019년 62개국으로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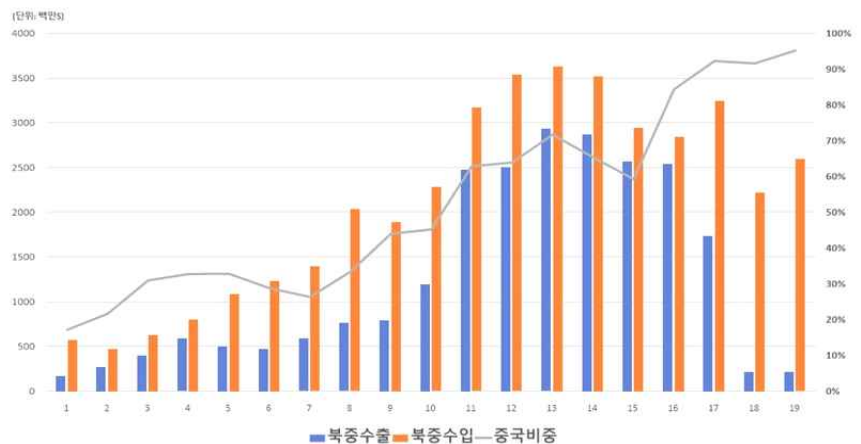
Ⅲ. 북한-중국 무역 추이

2019년 기준, 중국은 북한의 대외 무역에서 약 95.2%의 비중을 차지하는 최대 무역상대국으로 대북제재 이후에도 동맹국이자 접경국으로서 지속적인 교역을 이어오고 있음

북한과 중국의 수출입 품목은 중국이 북한 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95.2%, 2019)을 감안할 때 북한 전체 수출입 품목에 대한 대표성이 있으며, 2017년 유엔대북제재가 강화되고 중국 또한 이를 이행함으로써 기존 주력 수출입 품목인 석탄, 의류, 수산물, 공산품, 연료에서 비제재 식량류, 임가공 원부자재, 전자재 중심으로 변화

- 북한의 對中 무역구조는 수입의 비중이 절대적이며 지속된 대북제재로 이러한 적자구조는 심화되고 있음(2018년 20.0억\$, 2019년 23.7억\$)
- 하지만 제2차 북미회담(2019.2.28.) 결렬 이후 2019년 북한과 중국 간 무역은 非제재품목(식량, 시계, 가발 등)을 중심으로 물량과 비중 모두 증가(2018: 24.3억\$, 91.7% → 2019: 28.1억\$, 95.2%)

〈그림 4〉 북한-중국 수출입/비중 추이(2001~2019)



자료: 한국무역협회 북한무역통계

〈표 1〉 2019년 북중 수출 10대 품목(세분류)

(단위 : 백만\$, HS6, %)

순위	품목명	HS코드	금액	비중
1	시계	910811	49	22.7%
2	페로실리콘	720221	29	13.4%
3	가발	670419	29	13.4%
4	실험기구모형	902300	16	7.4%
5	팅스텐	261100	13	6.0%
6	전기에너지	271600	11	5.1%
7	몰리브덴	261390	9	4.2%
8	축구공	950662	6	2.8%
9	신발	640610	5	2.3%
10	플로트유리	700529	5	2.3%

자료: 한국무역협회 북한무역통계

〈표 2〉 2019년 북중 수입 10대 품목(세분류)

(단위 : 백만\$, HS6, %)

순위	품목명	HS코드	금액	비중
1	대두유	150790	116	4.5%
2	기타합성직물	540769	93	3.6%
3	쌀	100630	78	3.0%
4	밀가루	110100	73	2.8%
5	시계부품	911490	70	2.7%
6	설탕	170199	40	1.5%
7	염색편물	600632	39	1.5%
8	기타담배	240319	38	1.5%
9	컬러담배	240220	36	1.4%
10	의약품	300490	32	1.2%

자료: 한국무역협회 북한무역통계

Ⅳ. 주요 수출품목 추이

북한 주요 수출품목은 1차 상품과 노동력을 활용한 임가공품이 대다수 2017년 대북제재가 강화되기 이전에는 무연탄, 의류, 철광석, 수산물이 주력 수출품목. 제재강화 이후 시계, 페로실리콘, 가발, 텅스텐, 모형 등 비제재 품목으로 변화

- 품목은 변화하였으나 근본적으로 1차 상품과 노동력에 의존한 임가공품 위주 수출구조

〈표 3〉 북한 수출 10대 품목 추이(2016 vs 2019)

(단위 : HS2, %)

순위	2016	비중	2019	비중
1	무연탄	41.2%	시계	18.9%
2	식물의류	16.7%	철강	13.3%
3	철광석	7.6%	가발	13.0%
4	수산물	6.6%	텅스텐	8.2%
5	편물의류	3.1%	모형	6.6%
6	철강	2.7%	전기에너지	4.5%
7	전자기기	2.5%	축구공	3.7%
8	기계	2.1%	플라스틱	3.7%
9	선박	1.8%	신발	2.8%
10	견과	1.7%	기계	2.6%

자료: 한국무역협회 북한무역 통계

(수출품목 편중) 북한은 1970~80년대 이후 산업이 고도화 되지 못하여 제품 경쟁력이 부족하며 비교적 가공과정이 적고 매장량이 풍부한 무연탄, 철광석, 마그네사이트 등의 광물과 오징어, 건과류 등의 1차 상품, 저렴한 노동력을 활용한 의류 임가공 제품에 편중된 수출구조

- 특히 무연탄, 철광석 등의 광물 수출은 2001~2018년 북한 수출의 약 28% 의류 임가공 제품의 경우도 개별품목 합산 시(HS61, 62 합산) 약 36%에 달하여 광물과 의류 임가공품 수출은 평균적으로 북한 수출의 약 2/3 비중을 차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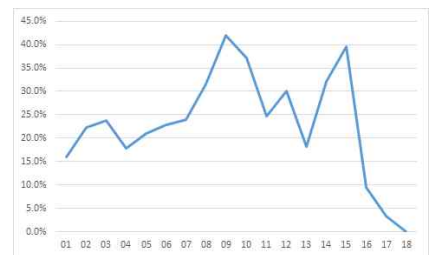
〈그림 5〉 북한 광물의 수출비중 추이



주: HS26, 27 합산치의 북한 연도별 수출 대비 비중

자료: 한국무역협회 북한무역통계, 반출입통계

〈그림 6〉 북한 의류 임가공품 수출비중 추이



주: HS61, 62 합산치의 북한 연도별 수출 대비 비중

자료: 한국무역협회 북한무역통계, 반출입통계

* 무연탄과 철광석을 포함한 대다수 광물의 수출은 2017.8월 유엔대북제재 결의안 2371호에 따라 전면금수, 의류 임가공품 또한 2017.9월 유엔대북제재 결의안 2375호에 따라 전면금수조치 됨

V. 주요 수입품목 추이

북한 주요 수입품목은 국내 생산이 어려운 공산품, 연료, 중간재, 임가공 원재료가 주류. 2017년 대북제재가 강화되기 이전에는 전자기기, 화물차 및 타이어, 연료, 수산물이 주력 수입품목. 제재 강화 이후 식자재, 건자재, 담배 등의 비제재 품목 비중 상승

〈표 4〉 북한 수입 10대 품목 추이(2016 vs 2019)

(단위 : HS2, %)

순위	2016	비중	2019	비중
1	전자(휴대폰, PC)	9.6%	플라스틱	10.1%
2	기계(컴퓨터 등)	8.0%	인조필라멘트	7.0%
3	화물차	7.9%	대두유	5.4%
4	연료(경유 등)	6.3%	담배	3.4%
5	플라스틱	5.9%	곡물(쌀 등)	3.4%
6	인조필라멘트	5.5%	편물의류	3.3%
7	편물	4.0%	편물	3.3%
8	철강	3.2%	시계부품	3.0%
9	타이어	2.6%	밀가루	2.9%
10	수산물	2.6%	가구	2.8%

자료: 한국무역협회 북한무역 통계

(수입품목 다양화) 북한의 수입은 수출과 달리 다양한 품목이 평균적으로 고른 비중.

이는 수출제품 생산과 대외교역, 장마당 유통을 통한 공산품 수요증가 대비 국내 산업낙후에 따른 외부제품 수입수요 증가에 기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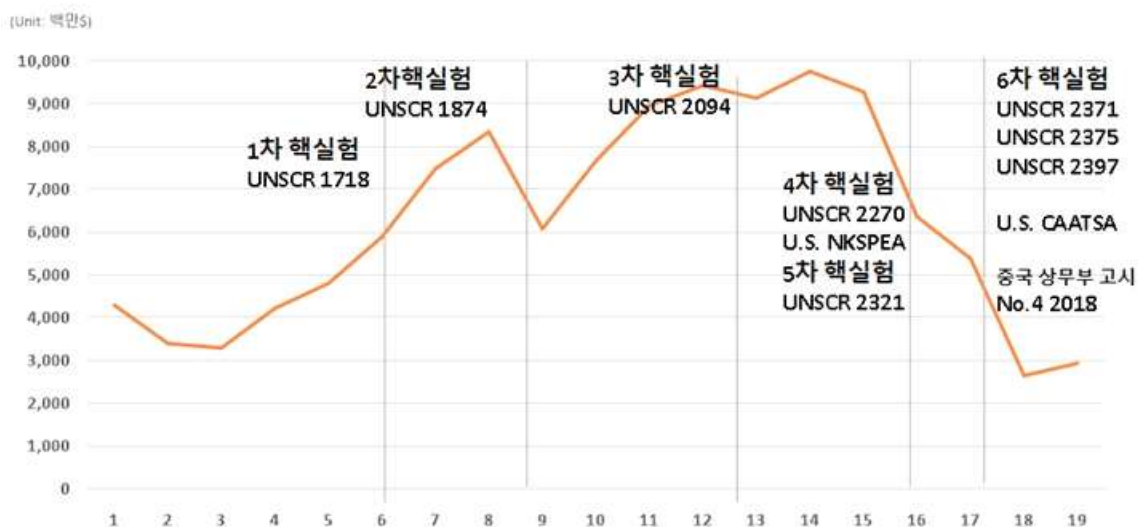
- (기계·전자) 기계류와 전자류는 PC, TV, 휴대폰 등 완성품과 전선, 변압기, 발전기, 전자회로 등 관련 부품 중심으로 꾸준한 수요가 있음. 2017년 강화된 대북제재 시행 후 이들 제품의 수입액은 공식통계상 0에 가까움
- (원부자재) 수출에 필요한 원부재자재 및 기계류의 수입비중이 상당함. 북한은 광산개발에 필요한 굴삭기, 화물차, 타이어 등의 기계류와 임가공 제품 수출에 필요한 의류 및 전자부품 등 원부자재의 수입이 상당부분 차지할 수밖에 없는 수입구조. 2017년 강화된 제재 이후에도 기존 의류원부자재의 수입과 새로운 임가공제품의 원부자재(시계부품 등)의 수입수요는 지속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
- (식량류) 쌀, 밀가루, 대두유, 비료 등 식량 관련 수입수요는 과거부터 비중이 높았으며 최근 식료품의 국산화 증대와 대북제재 강화에 따른 기존 공산품 수입의 비중이 급감하여 식량류 수입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증가세

VI. 북한 무역과 대북제재

대북제재는 2006년 북한의
1차 핵실험 이후 유엔안보리 산하
대북제재 위원회
(1718 위원회)라는 전담조직이
신설되며 본격화.
이후 연이은 핵/미사일 실험으로
제재항목이 추가되고
미국의 독자제재가 강화되며
북한 무역 감소를 이끔

- 2016년 이전 대북제재는 증명하기 어려운 조건성 수출입 금수조치(대량 살상무기 연관성 입증필요)로서 북한의 주요 수출입 품목의 지속적인 증가를 가져왔음
- 2차 핵실험 후 일시적인 북한 무역의 급감이 있었으나 이는 북중통계의 누락(8~11월)에 기인
- 본격적인 북한 무역의 감소는 2016년 4차 핵실험 이후 개성공단의 폐쇄에 따른 남북경협 전면중단과 2017년 6차 핵실험과 ICBM실험에 따른 3차례의 강화된 대북제재에 따른 북중무역 급감에 따라 이뤄짐
- 특히 2017년에 결의된 유엔결의안 2371호, 2375호, 2395호는 북한의 주력 수출품인 석탄, 철광석, 의류, 수산물 등을 민생용에 대한 허용 예외 없이 원천적으로 금수조치하였고 수입 또한 공산품, 화학제품, 인프라 연관 제품 등 기존 주요 수입품목을 금수조치 함으로써 현재까지 북한 무역 급감과 회복에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작용
- 미국의 독자제재(대북제재법안, 행정명령 등)는 2차 제재를 명시함으로써 포괄적인 해석을 가능하게 하여 미국과 거래하는 모든 국가, 기업의 대북 교역을 제한
- 중국 또한 6차 핵실험 이후로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제재에 동참할 수 밖에 없었으며 2018년 초 상무부 고시를 통해 유엔대북제재위 결의안 이행을 명시함
- 2019년은 북중무역의 증가로 북한 무역이 증가하였으나 제한적인 기저 효과로 유엔과 미국의 대북제재가 완화 또는 해제가 되지않는다면 북한 무역의 회복은 구조적으로 불가능한 상황

〈그림 7〉 북한 무역과 대북제재 추이(2001~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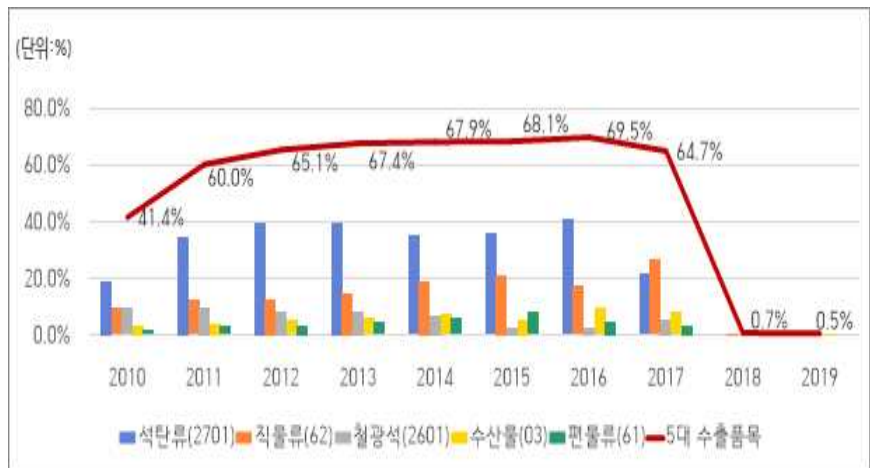


자료: 한국무역협회 북한무역 통계, 유엔대북제재 위원회, 미국 재무부, 중국 상무부

대북제재는 북한의 기존 주력 수출품의 급감과 대체 상품개발을 유도

-북한 주요 수출품(무연탄, 의류, 수산물 등)은 제재로 급감하였고 이에 북한은 비제재 수출품목(시계, 가발, 텡스텐 등)을 개발. 그러나 제한적인 수입수요로 기존 주력 수출품의 공백을 채우기에는 역부족

〈그림 8〉 북한 주요 제재품목 수출비중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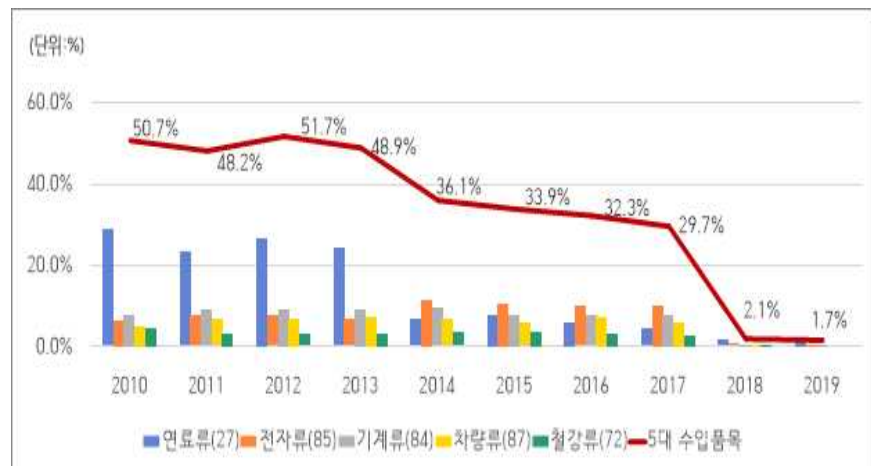
주 : 2018~19년 주요 제재 수출품목은 냉동 수산물(참치류), 수출액은 백만\$ 수준으로 미미

자료 : 한국무역협회 북한무역통계

대북제재는 북한의 기존 주력 수입품의 급감과 필수재의 수입비중을 증가시킴

-연료, 기계, 전자, 차량, 철강 등 기존 북한의 주요 수입품목들이 지속적으로 감소하였고, 특히 2017년 강화된 대북제재로 인해 수입비중 0% 가까이 급감

〈그림 9〉. 북한 주요 제재품목 수입비중 추이



주 : 2018-19년 주요 제재 수입품목은 일부 수입이 허용된 연료류(27)가 대부분

자료 : 한국무역협회 북한무역통계

**유엔대북제재 위원회는
다국적 전문가들로 구성된
대북제재 이행 감시패널을 운영**

- 전문가 패널들은 유엔회원국들이 대북제재를 충실히 이행하는지를 모니터링하고 연 1~2회 북한의 군사활동을 중심으로 경제제재 관련 회원국들의 대북 무역투자 및 제재 위반행위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
- 첫 보고서는 2010년 11월에 제출된 유엔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 1874호(2009)에 대한 보고서를 시작으로 가장 최근엔 2020년 3월에 제출된 유엔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 2464호에 대한 보고서까지 총 12건의 보고서를 제출
- 특히 2017년 강화된 3건의 대북제재에 대한 보고서는 이전보다 더욱 심화되었으며 무역투자 관련 위성사진을 활용하여 대북제재 위반 해상무역 행위를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금액을 산출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조사가 이뤄지고 있음
- 무역 관련 제재위반 사례로 가장 많이 보고되는 내용은 석유, 석탄, 모래의 해상거래
- 가장 최근의 보고서(S/2020/151)는 금수조치된 북한의 주력 수출품인 석탄이 베트남산, 러시아산 등으로 위장되어 중국 항구로 수출되고 있다고 분석. 석유의 경우 인도 등 타국적 등록선박을 활용하여 동중국해 등 지에서의 선박 간 거래를 적발
- 석탄의 경우 보고서는 2019.1~8월에 적발되어 추산된 해상거래의 양 3.7백만 톤을 370백만 달러로 추산하였으나 이는 상당히 과대평가된 액수로 철강생산 과잉으로 감소한 중국의 석탄수요, 국제시세, 제재로 인한 거래단가 하락, 과거 거래를 진행하였던 당사자들의 의견을 종합할 때 톤당 30\$가 현실적인 가격. 그러므로 합리적인 석탄 해상거래액은 약 1억 달러로 추정

Ⅶ. 코로나와 북한 무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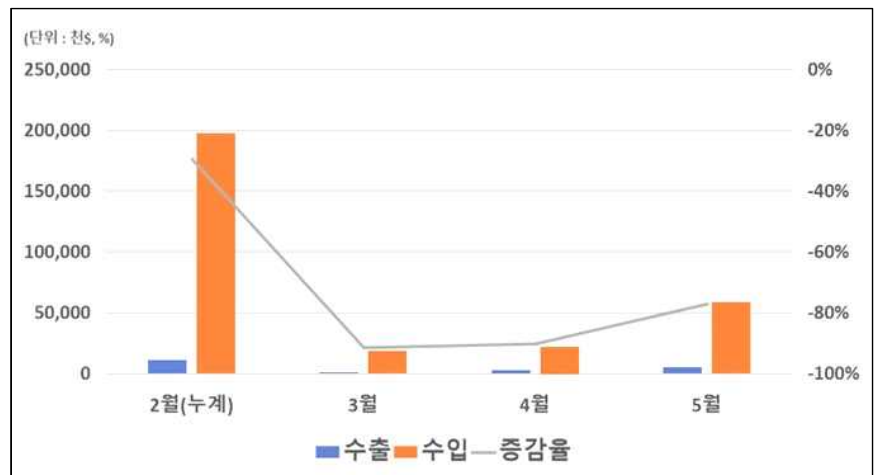
북한은 코로나 방역관련

올해 1월말 공식적인 물적·인적 왕래를 모두 금지하는 국경봉쇄를 실시한 후 현재까지 이어오고 있으며, 이에 따라 대외거래는 전년 대비 급감

-북한은 열악한 공공보건의로 인프라와 대응시스템 미비로 인해 코로나 방역을 위해 국경을 전면 봉쇄하는 극단적인 조치를 취해야 했으며, 이러한 극단적인 조치는 공식 무역 이외에도 그간 북한 무역의 상당부분을 차지해왔던 접경 및 해상의 비공식 무역도 상당부분, 상당기간 제한되어 북한 전체 대외거래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음

-3월 중순 이후 중국 단둥과 북한 신의주 사이 화물을 중심으로 간헐적인 거래 및 지원이 재개되고 있으며 이러한 움직임은 5월부터 양과 빈도가 많아져 통계에 반영되고 있음. 다만, 아직도 예년에 비해 현저히 감소된 수준의 거래

〈그림 13〉 북한-중국 월별 무역추이(수출입, 월별 증감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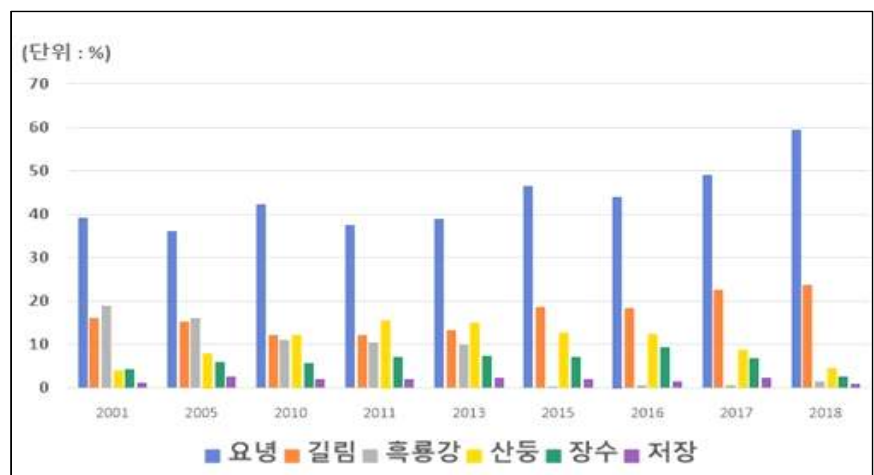


자료: 한국무역협회 중국무역통계

북한은 기존 동북3성위주의

육상거래에서 산둥·저장·장수성 등 점차 중국 남부지역과의 해상거래 비중을 늘려왔음. 2017년 대북제재 강화로 접경지인 요녕·길림성의 비중이 다시 늘어났으나 올해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상대적으로 방역이 용이한 해상거래의 비중이 향후 더욱 늘어날 가능성

〈그림 14〉 북한-중국 성별 무역비중 추이(2001~2018)



자료: 한국무역협회 중국무역통계

[현안 분석]

유엔패널보고서(S/2020/151) 해양수산 이슈와 전망

- 해상 불법 환적 및 해양수산자원 교역 현황

윤인주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부연구위원)

대북제재 강화 이후, 바다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

2019년 북·중무역 분석에 따르면 해운 부분에서 주목되는 몇 가지 특징이 있다.¹⁾ 첫째, 2019년 북·중무역의 무게 중심이 ‘육상’ 중심에서 ‘해상’으로 다소 이동했다. 기존 라오닝성과 지린성 중심의 무역이 광둥성으로 다변화된 것은 대북제재로 인한 북·중 접경지역의 교역 중단을 대비한 것으로 해석된다. 둘째, 유엔대북제재 전문가패널 보고서에 따르면 원유 및 정제유는 물론 광물 등 해상 불법 환적을 통한 유엔대북제재 대상 품목의 수출입이 지속되고 있다. 셋째, COVID19 이후 국경 폐쇄와 무역물품의 검역 강화에도 불구하고 화물선 왕래는 차단하지 않아 해운이 철도·도로 등 육상 운송에 비해 코로나의 여파가 덜할 것이라는 점이다.

본고는 남북교역 중단과 대북제재 강화 이후 북한의 대중국 무역의존도가 90%를 상회하는 가운데 이러한 북·중무역의 해상이슈에 주목하고 최근 발표된 유엔패널보고서의 해양수산 이슈 부분을 요약 정리하면서 그 내용과 시사점을 분석해보고자 한다.

2020년 3월 유엔패널보고서 해양수산 이슈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전문가패널 보고서 중 가장 최근인 2020년 3월 2일자로 공개된 Final report of the Panel of Experts submitted pursuant to resolution 2454 (2019) (S/2020/151)에는 부록 등 증빙자료를 제외하고 해양수산 이슈가 40페이지에 달한다. 내용은 크게 보면, 해상 불법 거래의 형태, 제재 회피 방법, 조업권·모래 등 해양수산자원 거래 등으로 구분된다. 보고서는 각 유형별 구체적인 사례와 불법 거래를 증빙하는 사진 등의 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이 보고서가 다루는 시간적 범위는 2019년 8월 3일부터 2020년 2월 7일까지이다.

1)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글 참고. 최장호·최유정, 「2019년 북중 무역 평가와 전망: 대북제재와 북한경제의 상관관계를 중심으로」, 『KIEP 오늘의 세계경제』, Vol.20, No.11(2020년 3월 23일), p. 8, 12, 15.

〈표 5〉 유엔패널보고서에 따른 대북제재 해상이슈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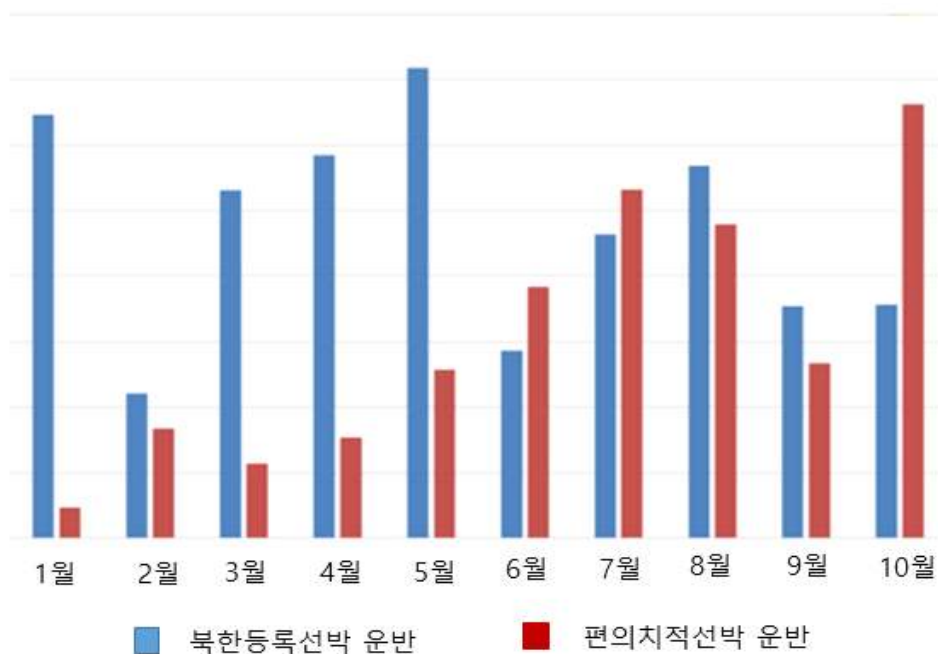
구분	불법 형태			우회 방법			거래 품목			
내용	직접 (direct deliveries)	환적 (ship-to- ship transfers)	편의치적 (foreign- flagged vessels)	자향선 (self- propelled barges)	일정 변경 (voyage irregularities)	선박 식별 조작 (manipulation of vessel identifiers)	석유 (oil)	석탄 (coal)	모래 (sand)	조업권 (fishing right)

자료: UN Security Council, *Final report of the Panel of Experts submitted pursuant to resolution 2454(2019)*, 2 March 2020 토대로 저자 작성

이 보고서는 대북제재를 위반하는 대표적인 사례인 유조선의 석유 불법 환적으로 시작한다. 불법 형태는 유조선이 몰래 북한 항만에 진입하는 것 뿐 아니라, 감시를 피한 편의치적²⁾선박 간의 환적, 북한등록선박 간의 환적 등이 있다. 북한은 석유의 절반 가량은 원유를 수입·정제하여 확보하고 나머지 절반은 석유제품 형태로 수입·밀수한다.³⁾ 원유는 조·중우호송유관을 통해 중국으로부터 전량수입하고 석유제품은 육상의 경우 신의주로 들어오지만 해상의 경우 중국으로부터는 서해 남포항, 러시아로부터는 동해 문천항으로 들어온다. 그 외 각 기업소는 선박을 이용해 밀수한다.

아래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9년에는 편의치적선박의 석유제품 운반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1월 기준으로는 북한등록선박의 운반이 월등히 많았으나 6월부터 역전되기 시작하여 10월 기준 편의치적선박의 운반이 1.5배 이상 많은 것으로 보인다. 등록선박과 편의치적선박의 운반을 더할 경우 전체적으로 해운 실적은 1월 대비 10월에 1.5배 이상 증가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림 10〉 북한의 유조선 운반 실적 비교 현황(2019년 1월~10월)



자료: UN Security Council, *Final report of the Panel of Experts submitted pursuant to resolution 2454(2019)*, 2 March 2020 p. 8.

2) 선박의 선적을 외국에 옮기는 것을 뜻한다. 선박에 부과되는 세금 절감과 선원 고용의 편의 등을 목적으로 상대적으로 세금이 싸고 운항규제가 덜 심한 파나마, 온두라스, 홍콩 등에 선적을 올려두는 사례가 많다.

3) 김경술, 「북한의 석유산업과 유통」, 『KDI북한경제리뷰』, 2018년 1월호, pp. 54-55.

대북제재를 우회하거나 회피하는 새로운 방법은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다. 최근에는 길이 100미터가 넘는 자항선(self-propelled barge, 중량물 운반용 특수선)이 바다로 향해(ocean-going voyage)하고 있다. 아래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자항선은 주로 석탄을 운반한다. 자항선은 해사이동업무식별부호(Maritime Mobile Service Identity: MMSI)가 있을 뿐 사람으로 치면 주민번호에 해당하는 선박식별번호, 즉 IMO(국제해사기구) 번호가 없다. 또 다른 수법은 향해 일정을 자주 변경해서 우회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하는 것이다.

〈그림 11〉 석탄을 싣고 이동하는 북한의 자항선



자료: UN Security Council, *Final report of the Panel of Experts submitted pursuant to resolution 2454(2019)*, 2 March 2020p. 27.

해상 거래 품목은 석유, 석탄뿐 아니라 모래도 있다. 2019년 5월 이후 황해남도 해주와 함경남도 신창에서 실은 모래가 중국 및 타국 편의차적선박으로 이동하는 것이 100회 넘게 포착되었다. 톤당 22달러로 환산할 경우 최소 2,200만 달러에 달한다. 2019년 4월에서 6월 사이 해주항에서는 자항선 92척 이상이 모래를 싣고 이동하는 것이 포착되기도 했다. 또 다른 품목은 조업권이다. 2018년에 북한의 조업권 수익은 1억 2천만 달러로 보고된 바 있다. 조업권 거래는 대북제재에서 금지되지만 2019년 중반까지도 북한 수역 조업권을 가진 중국 선박이 적발되었다. 적발된 선박의 선원 면담에 따르면 조업권 대가로 3개월간 약 40만 위안(약 57,594달러)을 지불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그림 12〉 모래를 실은 자항선(왼쪽)과 중국 어선이 구매한 북한 조업권(오른쪽)



자료: UN Security Council, *Final report of the Panel of Experts submitted pursuant to resolution 2454(2019)*, 2 March 2020, p. 41, 44.

대북제재가 해양수산 분야에 미치는 영향 및 포스트코로나 전망

최근 유엔패널보고서의 해양수산 이슈를 살펴본 결과, 북한은 해상 불법 환적을 중심으로 대북제재를 회피하는 방법을 발전시켜오고 있다. 대북제재 품목에 해당하는 석유, 석탄, 조업권 뿐 아니라 현금 전환성이 높은 모래자원도 해상을 통해 교역되는 사례가 적발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2019년 북·중무역에서 주목되었던 특징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육상 대비 해상 무역 증가 가능성과 석유·석탄 등 대북제재 대상 품목의 수출입, 상대적으로 인적 접촉이 낮은 화물선 왕래의 지속 등이 그러하다.

대북제재의 영향 중 하나는 그동안 북한이 주창하던 대외무역 대상과 품목의 다각화와 다변화⁴⁾가 미미하나마 새로운 형태로 일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무역상대국은 급감했으나 태국, 싱가포르 대신 코스타리카, 짐바브웨, 폴란드, 페루 등의 비중이 높아졌다.⁵⁾ 2019년 북한 무역 10대 국가는 중국, 러시아, 브라질, 인도, 코스타리카, 독일, 폴란드, 페루, 사우디, 짐바브웨이다. 전체무역의 95.2%가 대중국 무역이기는 하나 인도와 사우디를 제외한 8개국에서 북한과의 무역이 증가했고 대부분 해상을 통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 중 페루가 흥미롭다. 페루는 2019년 북한 무역의 0.1%밖에 차지하지 않지만 전년대비 대북무역이 81.7% 증가했다. 북한은 페루로부터 구리를 수입하고 흥미롭게도 페루로 냉동어류를 수출한다. 냉동가다랑어·황다랑어·눈다랑어, 기타어육 등이 신규품목으로 등장했는데 어족자원이 풍부한 페루 여건을 고려할 때 북한-페루 간 임가공 구조에 궁금증을 자아낸다.

포스트코로나 이후 뉴노멀이 북·중무역은 물론 북한의 대외무역에도 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전과 같은 육로 형태보다 코로나 방역을 감안한 해상무역 비중이 높아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⁶⁾ 또한 코로나 이후 경기침체와 유가하락으로 인한 석유 불법 환적 가능성이 높아질 가능성도 있다. 마땅한 거래처와 투자처를 찾지 못한 원유와 석유 제품이 저가에도 불법 거래에 노출될 위험이 크기 때문이다. 언택트 기술의 발달은 양면성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소프트웨어에 강하다고 알려진 북한은 인적 접촉을 최소화하는 뉴노멀 시대에 대북제재를 회피하기 위한 기술 개발에 더욱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전 세계적으로 언택트 기술의 개발과 적용, 보편적 상용화에 다 함께 노력을 기울일 것이므로 이러한 회피 방법을 적발하고 차단하는 기술 발전도 동시에 기대된다.

4) 윤인주, "North Korea's Trade since 1990s and Future Directions in Fisheries Export", *North Korea's Economic Development and Future Strategy for Inter-Korean Fisheries Cooperation*, FAO International Expert Symposium, Sep. 26~30, Rome, Italy.

5) 이요셉, 「2019 북한무역 10대 국가 10대 품목」, 『KITA 남북경협 리포트』, Vol.02(2020). p. 5, 11.

6) 위의 글, p. 14.

* 유익한 토론과 인사이트를 제공해주신 KMI 해운·물류연구본부 황선일 부연구위원께 감사드립니다.

[인터뷰]

남북교류협력사업 전문 이행기구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종합상담센터**양재석 센터장****Q.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에 대한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 A.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는 남북협력사업의 전문 이행기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00년대 남북교류협력이 확대되며, 남과 북 공히 각종 교류협력 사업의 실행을 위한 전담기구의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2007년 5월 우리 측은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를, 북측은 ‘민족경제협력연합회’ 산하 ‘명지총회사’를 이행기구로 지정했습니다. 현재는 남북 경제협력과 인도지원 분야의 민간 협력을 지원하는 업무를 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Q. ‘남북교류협력 종합상담센터’에 대한 소개도 부탁드립니다.

- A. ‘남북교류협력 종합상담센터’는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과 관련해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교류협력을 추진하고 싶으나 관련 정보, 경험 부족 등으로 망설이거나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센터는 지자체, 민간단체, 기업을 막론하고 대북 협력사업을 진행하고자 하는 모든 주체들이 사업을 보다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준비 단계부터 대북 접촉, 방북, 대북제재 품목의 면제 지원 등 모든 절차에 대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Q. 최근 남북교류협력 진행 상황 및 동향을 간단하게 소개해 주십시오.

- A. 남북교류협력은 사업성격에 따라 경제협력, 사회문화협력, 인도지원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는 이들 3개 분야에 대한 상담 및 컨설팅, 정부의 행정업무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5.24조치’ 및 대북제재 등으로 인도지원 중심으로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인도지원의 경우 과거에는 결핵 치료제 등 의약품 지원과 분유, 곡물 등 식량 지원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아프리카 돼지열병,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진단 관련 기계·설비와 방역에 필요한 약재 등이 인도지원 품목으로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 지자체 차원의 대북 인도적 지원사업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2019년 10월 통일부가 ‘인도적 대북 지원사업 및 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 개정을 통해 지자체가 대북 인도지원 사업을 직접 추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습니다. 이후 서울, 경기도, 인천, 충남, 강원, 광주 등 광역지자체는 물론 고양시, 파주시 등 기초지자체도 ‘대북지원사업자’로 선정되어 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Q. 해양수산분야의 인도적 지원 사례가 있다면 소개해 주십시오.

- A. 과거 남북교역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던 시기에는 경협 또는 인도지원 형태의 수산분야 협력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었으나, 최근에는 5.24조치 및 대북제재 등으로 해양수산분야 협력사업이 진행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거 수산물 교역으로 북한에서 바지락, 낙지 등 주로 어패류 등이 반입되었고, 우리는 북한에 종패 및 고기 잡는 어구 등을 제공했습니다. 인도지원과 관련해 국내 NGO단체 및 지자체들이 미역 등을 북한에 지원한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추가적인 사례는 자료를 찾아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Q. 향후 해양수산분야 남북협력의 가능성을 전망해 주십시오

- A. 앞으로도 대북제재가 계속된다면 추진 가능한 사업은 인도지원 분야로 남북 수산협력을 통해 북한주민의 먹는 문제를 조금이나마 해결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 최근 국내 수산업 업체 중에서 북측 민족경제협력연합회(민경련)와 접촉을 하고 수산협력에 대해 협의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협의 결과, 북측도 남북 수산협력에 매우 긍정적이었고 특히, 방어와 같은 동해 고급 어종에 관심을 표명하며 어업 기술과 어구 등을 요구하였다고 합니다. 위와 같이 북측이 남북 수산협력에 대해 적극적만큼 대북제재의 틀을 유지하면서 상호 신뢰를 쌓을 수 있는 인도지원 또는 구상무역 형태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Q. 대북 제재대상 품목과 면제 신청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A. 2006년 북한의 1차 핵실험 이후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1718호가 채택되면서, 대북제재를 전담하는 1718 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이 계속되면서 대북제재 내용 및 정도는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유엔안보리결의안에서 지정한 제재 품목에 해당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북한에 제공할 수도 없고 북한으로부터 반입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인도적 지원의 경우 ‘면제신청’ 절차를 통해 승인을 받아 지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 준비 시, 북측에 제공하고자 하는 품목이 유엔제재 품목에 해당되는지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면제신청’을 통해 승인을 받는 데 보통 2~3개월이 소요되며, 절차도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이를 위해 저희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가 ‘면제신청’ 업무는 물론 대북제재 관련 상담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자료 확인 결과 수산분야 인도적 지원은 전남 완도군이 민관협력을 통해 2000년, 2001년, 2003년, 2006년 마른 미역, 간미역, 김 등을 지원한 사례가 있으며, 부산시 기장군도 기장수협과 함께 2010년 미역을 지원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Q.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을 시작하려고 한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안내 부탁드립니다.

A. 북한에 인도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대북지원사업자’ 지정을 받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 중요한 조건이 있는데 하나는 북한에 지원한 실적이 있어야 하고, 둘째는 지원과 관련한 합의서가 있어야 합니다. 지원 실적은 제3자를 통해 지원한 것도 인정되므로 신규 단체의 경우 경험 있는 인도지원 단체와 함께 대북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경험과 실적을 축적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인도지원 관련 합의서가 필요한데 가능한 북쪽 파트너와 직접 체결한 합의서를 권장합니다. 다음은 지원 품목이 대북제재 품목인지 확인해야하며, 유엔제재 품목인 경우 면제신청 절차를 통해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대북지원사업자 신청방법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대북지원 물품의 분배 문제도 고려해야 합니다. 지원 실적, 합의서, 지원물품 선정, 모니터링 방법 등이 모두 준비되면 대북지원정보시스템을 통해 신청하고 지정 후 관련 사업을 추진하면 됩니다.

대북 인도지원에 대한 정부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 정부지원금 50%, 자체 기금 50%를 매칭해서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부지원의 경우 목적 달성 및 실현 가능성, 분배 모니터링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지원 규모를 판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Q.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 추진 시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다면 알려주십시오.

A. 무엇보다 북측 파트너가 중요합니다. 믿을 수 있는 파트너를 만나 상호 신뢰를 형성하면, 지속적인 지원 사업이 가능할뿐더러 큰 성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남북관계 상황으로 인해 중개인을 통해 지원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신뢰할 만한 중개인을 선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모니터링 문제도 중요합니다. 최근 남북 간 방문 및 접촉 등이 제한되면서 지원물자에 대한 확인이 예전보다 더 어려워졌습니다. 이를 위해 합의서 체결 시 모니터링 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Q. 끝으로 이 인터뷰를 보게 될 해양수산분야 관계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지요?

A. 남북교류협력지원센터는 남북교류협력 전 분야를 대상으로 원스톱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계획부터 북한 주민접촉, 북한 방문, 물품 반출입, 수송장비 운행, 대북제재 면제 등 정부의 행정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자체, 단체, 기업, 일반인 등 누구든 남북교류협력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문의사항이 있으면 저희 협회 상담센터에 연락주시면 최선을 다해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남북교류협력이 조만간 정상화되어 여러분과 함께 수산분야 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북한 동향]

2020년 상반기 북한 해양수산 동향

- 「로동신문」 분석을 중심으로

진희권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전문연구원)

윤인주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부연구위원)

I. 개 관

북한은 국제사회의 제재에 맞서
‘정면돌파’를 선언하며 기본전선인
경제전선에서 내부의 생산
잠재력을 총동원하여
자립적 토대를 구축할 것을 강조

김정은 위원장은 ‘정면돌파전’의
‘주타격 방향’을 농업전선으로
지목하였으며, 과학기술과 교육,
증산절약을 강조하였으나 해양수산
관련 분야에 대한 언급은 없었음

최근 북한의 주요 회의 등에서
해양수산 관련 언급은 거의 없으며,
「로동신문」 기사 숫자도 큰 폭으로
감소하였음

- 김정은 위원장은 2019년 12월 28일~31일까지 진행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5차 전원회의를 통해 자력갱생을 통한 ‘정면돌파’ 노선을 대내외에 밝혔음
- 매년 1월 1일 발표하던 ‘신년사’는 없었으며, 전원회의 회의 결과를 토대로 2020년 북한의 경제 건설 방향을 예측할 수 있음

- 농업의 과학화, 기계화 등을 통해 농업생산을 결정적으로 증대시킬 것을 강조하였음
- ‘과학이 경제발전을 견인하는 기관차라면 과학의 어머니는 교육’이라며 과학 기술과 교육을 연계해 강조하였음
- ‘증산절약’과 함께 생태환경 보호와 자연재해방지대책도 비중 있게 강조하였음

- 과거 신년사에서는 수산업 분야 평가와 과제가 한 단락 이상 언급되었음
- 2020년 4월 최고인민회의에서 수산부문의 2019년 성과로 “더 많은 물 고기를 잡아 인민들에게 보내주기 위한 어로전투를 힘있게 전개하였으며 어장탐색지원체계를 갱신하여 물고기잡이의 과학화수준을 더욱 높였다”는 언급이 유일함
- 2020년 상반기 「로동신문」 기사 중 해양수산분야 기사는 총 100건이 보도되어 2018년 같은 기간 132건에 비해 24% 감소하였음

〈표 6〉 2020년 상반기 노동신문 해양수산 분야 기사 분류

	어선어업	양어·양식	유통·가공	간척	해운항만	해양관광·친수문화	해양환경·자원관리	기타	합계
1월	3	1	0	1	0	0	5	0	10
2월	1	4	0	2	0	0	2	3	15
3월	4	6	3	4	0	3	0	0	26
4월	2	4	0	2	1	1	8	5	15
5월	1	6	0	6	2	1	1	3	38
6월	-	7	0	4	1	1		2	28
합계	11	28	3	19	4	6	16	13	100

자료: 한국해양수산개발원

II. 분야별 동향

1. 수산업

수산업 분야 기사 42건 중 양어·양식 관련 기사의 비중이 높았으며, 특히 바다양식 관련 기사가 21건을 차지해 예년에 비해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양어·양식 분야에서는 내수면 양식 기사가 대폭 감소했으며, 바다양식 중 해조류 양식에 대한 기사가 증가하였음

어선어업 분야에 대한 기사 숫자 감소와 함께 생산 독려 어조도 뚜렷하게 줄어들고 있음

- 전체 해양수산 분야 기사 중 바다양어·양식 기사는 21건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2019년 상반기 10건 대비 큰 폭으로 증가함
- 반면 내수면 양어 기사는 7건으로 나타나, 2018년 상반기 내수면 양어 23건에 비해 대폭 감소함
- 어선어업 분야의 기사는 계절적 요인으로 하반기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으나, 2015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음

- 2017년 이후 내수면 양어에 대한 기사는 꾸준히 증가하였으며, 전국 각지에 그물우리(가두리) 양어장 건설 상황이 소개되었음. 하지만 2020년 상반기에는 함경북도 어랑군 장연호에 가두리 양식장 설치와 '원산양어사업소' 건설, 평양시와 남포시에 양어 시설 건설 소식이 있었음
- 과거 서해 함해남도에서 집중되었던 해조류 양식이 '김책대경수산사업소', '청진수산사업소', '경포재배어업사업소' 등 동해 지역으로 확대되고 있음

- 어선어업 분야 기사의 대다수는 최고지도자의 과거 방문 일화 등을 소개하는 내용이었으며, 현재의 생산 성과에 대한 기사는 3-4건에 불과함
- 최근 몇 년 간 김정은 위원장이 수차례 방문했으며, 성과를 자랑했던 '조선인민군 수산사업소'에 대한 기사는 한 건도 없었음
- 북한은 서해에서 흑한기를 피해 휴어기를 가지며, 새해에 일제히 어로활동에 돌입하고 있음. 2020년의 경우 4월 10일에 일제히 어로 활동에 돌입하였으나, 2014년(2월28일), 2015년(2월23일), 2017년(3월7일)에 비해 현저하게 늦어졌음
- 어선 어업에 대한 언급이 줄어든 것은 유류 부족으로 어선 가동률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어획량 감소와 직결될 것으로 예상됨

‘자력갱생’과 생산 잠재력을
총동원하는 경제기조 속에서
부족한 자재와 사료를
자체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진행 중

2. 간척

농업 생산량 증대를 강조하는
가운데, ‘간척지건설 5개년 계획’을
추진하는 등 간척사업 활발하게
진행

- 양식장에서 부족한 자재 해결을 위해 파(波)밭줄 재활용, 대용자재 이용 등이 적극 장려 되고 있음
- 양어 사료 문제 해결을 위해 축산 폐기물 활용, 닭과 오리 등 가금류의 털에서 단백질을 추출한 첨가제 개발 등 진행

3. 해양관광·친수문화

2020년 4월 완공예정이었던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는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개장이 지연되고 있으나
최근 막바지 공사가 진행 중

- 북한은 2020년이 ‘간척지건설 5개년 계획’의 첫해라고 언급했으나 구체적 대상과 내용은 확인할 수 없음
- 북한은 올해 간척지 공사를 통해 약 2,000정보(약 2km²)의 농지가 확보되었다고 밝혔으며 황해남도 룡매도 간척지, 평안남도 안석 간척지, 평안북도 흥건도, 월도 간척지 등 대규모 간척 공사가 진행 중

4. 해운·항만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수출입 등
경제 활동 위축으로, 최근 물동량
및 항만 관련 기사는 전무함

- 김정은 위원장이 각별한 관심을 보였던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에 대한 기사는 2건 보도되었으며, 녹화와 내부공사가 진행 중이라고 함

5. 해양환경·자원관리

2019년 12월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생태환경 보호와
자연재해방지대책을 비중 있게
언급하였으며, ‘유용동물 보호구 지정
및 생물다양성 보호 의무 이행 언급

- 해운·항만 관련 기사 4건 중 3건은 서해갑문 등 과거 성과와 관련된 최고 지도자의 일화를 소개하는 기사였으며, 나머지 1건은 자강도에 통학용 선박 지원에 대한 기사였음
-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국경이 폐쇄되는 등 대중 무역이 급감하였으며*, 이는 당연히 해운 물동량 등에도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추정 됨

- 북한은 해양환경 파괴로 인한 피해 및 세계적인 환경보호 노력 등의 기사를 보도하며 해양환경 보전의 중요성 등을 강조하고 있음
- 5월 22일 ‘국제생물다양성의 날’을 맞아 관련 기사를 보도하며, ‘생물다양성협약체약국’으로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 나갈 것을 약속함

* 이석, “2020년 북한경제, 1994년의 데자뷔인가?,” 『KDI 북한경제리뷰』, (2020년 5월호), pp.15~16에서는 2020년 3월~4월 북한의 대중 무역량이 90% 이상 급감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Ⅲ. 시사점

1. 수산업 대한 강조 기조 느슨해져, 경제제재로 인한 경제 상황 악화의 영향으로 추정

2020년 노동신문 언론보도
모니터링 결과, 해양수산,
특히 수산업에 대한 기사 수와
언급이 대폭 감소한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이는 수산업에
대한 투자가 여의치 않은 경제
상황을 반영하는 것으로 추정됨

흥미로운 것은 북한이 강조하던
내수면 양어 기사가 감소하고
바다양식 중 해조류 양식 기사가
증가한 것인데, 그동안 내수면
양식을 단백질 공급 차원에서 식량
문제로 접근했던 것을 고려하면
의외인 대목임

더욱 주목할 것은 어선어업의 기사
숫자 및 생산 독려가 느슨해진
점임. 이는 어선어업을 통한 성과를
보여주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으로
해석됨

-북한은 2019년 말과 2020년 초 예고한 대로 경제제재 장기화에 맞서
정면돌파전에 돌입하면서, 식량 안보에 직결되는 농업 생산량 확보에 전
력하고 있음

-정면돌파를 위해 식량 증산에 집중한다면 내수면 양식도 강조해야 마땅하
다. 하지만 현재의 상황은 내수면 양식이 현실적으로 단백질 공급 차원에
서 의미가 있었던 것인지 의문이 들게 함

-물론, 식량 공급 전체로 보면 내수면 양식은 농업에 대해 상대적으로 비
중이 낮기 때문에 속단하기는 어렵지만, 그동안 북한의 내수면 양식이 실
제 식량 공급보다는 김정일 위원장의 유훈 계승과 보여주기식 사업이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북한은 근래 몇 년 간 만능어선과 어군탐지기 도입 등으로 어로어업의 현
대화과 어로방식의 과학화를 강조해 왔지만, 대북제재 강화 이후 유류 부
족으로 어선 가동 자체가 생각만큼 원활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음

2. 어로어업 또는 양식어업 강조점, 북한 경제상황에 따라 비례 혹은 반비례

김정은 국무위원장 집권 이후
2013년부터 수산업을 강조하기
시작했으며, 2014~2019년까지
6년 연속으로 신년사에서 수산업을
언급해왔음

대북제재가 2016년부터 강화되어
실제적으로 2017년부터 영향을
미쳤다고 본다면, 대북제재로 인한
수산업 생산 차질은 이미 시작되었
던 것으로 해석됨

추가적으로 세밀한 연구조사와
근거가 필요하겠으나 직관적으로
보기에 장기적인 추세 상 북한은
대내외 경제사정이 좋을 때는
어로어업을 강조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양식어업을 강조하는
것으로도 보임

- 2014년에서 2016년까지는 수산업을 통한 먹는 문제 해결과 인민생활 개선을 촉구했고 2017년에서 2019년까지는 양어·양식 활성화와 수산인프라 강화를 강조함

- 2019년에는 2017~2018년에 강조했던 어로전투 대신에 처음으로 수산자원의 보호·증식을 강조하고 이를 통해 수산업이 발전할 새 길을 열자고 함

- 실제로 북한의 수산업 생산량은 2016년을 정점으로 하락하기 시작했음. 김정은 위원장의 수산업에 대한 어조 변화는 이와 같은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됨

- 북한이 어로어업을 강조하기 시작한 2013년 무렵은 대외무역이 상대적으로 위축되기 전임. 이 시기에는 수산업 부문의 투자활성화가 가능했으나 2017년 이후에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대북제재 장기화로 인한 정면돌파전을 선포한 올해 상반기 북한 노동신문 언론보도가 이를 시사하고 있음

[뉴스 요약]

2020년 2분기 북한 해양수산 소식

해양

“해양에너지를 포집할수 있는
새로운 막 개발”
「로동신문」 4월 4일

- 해양에너지를 활용한 전력 생산 관련 해외 신기술 소개

“방조제와 내부망공사 련일 혁신”
「로동신문」 4월 5일

- 황해남도 ‘룡매도간석지’ 건설장 3, 4 구역 방조제와 내부망 공사 진행
상황 보도

“동해안의 특성에 맞는 생산방법을
찾아주고 실천하여”,
「로동신문」 4월 6일

- ‘원산제염소’의 소금 생산량 증대 성과 소개

“수산자원보호사업 강화”
「Voice of Korea」 4월 7일

- 국토환경보호성에서 수산자원 보호 증식을 위해 인공배양장 건설, 인공어
초 조성 등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각지에서 간석지건설 본격적으로
추진” 「로동신문」 4월 7일

- ‘평안북도간석지건설종합기업소’, ‘홍건도간석지’ 2단계 1구역 외부망 공
사 완공
- ‘황해남도간석지건설종합기업소’, ‘룡매도간석지’ 3, 4구역 내 장석 쌓기와
6구역 내부망 공사 진행 중

“지하초염수에 의한 소금생산
2.5배 장성”,
「로동신문」 4월 8일

- ‘소금생산종합기업소’에서 지하초염수(염지하수)를 활용해 소금 생산량을
증대한 성과 소개

“박봉주동지 여러 단위 현지료해”
「로동신문」 4월 10일

- 박봉주 국무위원회 부위원장 ‘남포대경수산사업소’와 ‘룡매도간석지건설장’
방문

**“바다생태계를 위협하는
산소함량감소”**

「로동신문」 4월 10일

- 바다 속 산소함량 감소로 바다생물의 생존 공간이 줄어들고 있으며, 향후 어업활동과 해양경제 발전에 치명적인 후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보도

**“생태환경보호에서 나서는 몇가지
문제” 「로동신문」 4월 19일**

- 생태환경보호를 위해 산림조성과 생물다양성 보장, 수자원 관리가 중요하며, 이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보도

“철새에 대한 상식”

「로동신문」 4월 19일

- 조류를 통해 전염병이 확산될 수 있으므로, 철새들의 이동 경로를 파악하고 비상 방역 사업을 준비해야 한다고 보도

- 철새들의 이동 유형과 특징에 따라 ‘사철새’, ‘여름새’, ‘겨울새’, ‘통과새’, ‘길잃은 새’로 분류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건설을 적극 지원한 일군들과 근로자들에게 감사를 보내시었다” 「로동신문」 4월 27일

“명승이 많은 아름다운 내 나라”

「메아리」 4월 28일

- 북한의 명승지를 소개하며, 동해안의 관광지(송도원, 명사십리, 총석정, 집삼, 마전, 서호, 송단, 속후, 학사대)와 서해안의 관광지(서해갑문, 몽금포, 와우도, 룡수포, 장산곶, 금산포)등을 언급

“환경보호와 인류의 미래”

「로동신문」 4월 28일

- 전 지구적 환경 파괴로 생명의 위협을 받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며, 환경보호의 중요성 소개

- 바다자원, 산림자원, 수자원의 중요성 강조

“바다새보호원의 일지를 펼치며”

「로동신문」 4월 30일

- ‘바다새보호구’로 지정된 평안북도에 ‘랍도’를 소개하며 환경 보호·관리 중요성 강조

**“혁신적인 안목, 대담한 작전은
성과의 담보” 「로동신문」 5월 6일**

- ‘황해남도간석지건설종합기업소’의 ‘룽매도간석지’ 3, 4구역 방조제 공사 성과 소개

“청춘의 기상 내려친다”

「로동신문」 5월 6일

- ‘룽매도간석지’ 건설에 투입된 청년 건설자들의 일화와 성과 소개

“만가동의 동음을 더 높이!”**「로동신문」 5월 6일**

- ‘룡매도간석지’ 건설 현장에 투입된 ‘기계화분사업소 운주직장’ 운전사들의 일화와 성과 소개

“민족의 자랑 - 천연기념물(10)”**「로동신문」 5월 8일**

- 함경남도 홍원군에 위치한 ‘홍원술도’에 대한 소개 기사

“김재룡동지 안석간석지건설장과 귀성제염소 현지료해” 「로동신문」 5월 10일

**“길이 없으면 우리가 이 간석지에
첫길을 뚫시다”****「로동신문」 5월 11일**

- 평안남도 온천군 ‘운하협동농장’의 간석지 농사 경험과 관련한 김일성 주석의 일화 소개

**“박봉주동지 함경남도안의
여러 부문 현지료해”****「로동신문」 5월 12일**

- 박봉주 국무위원회 부위원장, 함경남도 시찰 중 ‘광명성제염소’ 방문

**“간석지내부망공사에 진입,
성과 확대” 「로동신문」 5월 21일**

- 황해남도 ‘룡매도간석지’, 평안북도 ‘흥건도간석지’에서 내부망 공사에 진입했다는 소식 소개

“자연에 우리의 해결책이 있다”**「내나라」 5월 22일**

- 세계적인 환경 파괴 상황과 생물다양성 보호에 대한 소식을 전하며, 북한의 노력을 소개(작성자: 조선자연보호련맹 중앙위원회 연구사 김지향)

**“인류의 공동과제-생물다양성의
보호” 「로동신문」 5월 22일**

- 5월 22일, 국제생물다양성의 날을 맞아 생물다양성 보호의 중요성과 북한 내 성과 소개

“유용동물보호구가 꾸려진다”**「로동신문」 5월 22일**

- 함경북도 경성군 장양리에 ‘유용동물보호구’가 건설될 계획이라는 소식 보도

“인간의 요구-바다생태환경보호”**「내나라」 6월 2일**

- 바다 생태환경 보호와 수산자원 조성의 중요성 보도

**“월도간석지 2구역 1차물막이공사
성과적으로 결속”**

「로동신문」 6월 3일

- ‘평안북도간석지건설종합기업소’에서 ‘월도간석지’ 2구역 1차물막이 공사 완료

- 공사로 약 1800 정보의 토지가 확보되었으며, 현재 2구역 방조제 보강과 배수문 공사 진행 중

“생물다양성보호사업 활발”

「조선중앙통신」 6월 4일

- 6월 5일 세계환경의 날을 맞아 생물다양성 보호 사업의 중요성 보도

“년간 소금생산계획 수행”

「로동신문」 6월 13일

- 강원도 ‘원산제염소’에서 연간 소금 생산계획을 5월말에 완료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건설을
성심성의로 지원한 근로자들에게
감사를 보내시었다”**

「로동신문」 6월 13일

-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 건설을 지원한 체신성 ‘중앙정보통신기재판매소’, ‘동평양금속건구공장’ 등에 김정은 위원장 명의로 감사 전달

**“김재룡동지 인민경제 여러 부문
현지료해” 「로동신문」 6월 14일**

- 내각 총리 김재룡, ‘연백제염소’ 방문

“바다물온도측정장치 연구완성”

「메아리」 6월 18일

- 함경남도 ‘양화수산사업소’에서 ‘바다물온도측정장치’를 연구완성

**“불굴의 공격정신으로 과감히
전진” 「로동신문」 6월 21일**

- ‘평안북도간석지건설종합기업소’에서 진행하고 있는 ‘흥건도간석지’와 ‘월도간석지’ 공사장의 성과 소개

수산

“유기폐설물로 물고기의 자연먹이를 생산” 「조선의오늘」 4월 1일

- 평양시 ‘평천종어사업소’에서 ‘뽕물등에’를 번식시켜 물고기 먹이로 이용하여 성과를 올리고 있음

“송어랭수탕이 전하는 이야기” 「로동신문」 4월 3일

- 평양의 특산물인 송어를 이용한 요리와 연관된 김일성 주석의 일화 소개

“바다가양식면적 1.2배이상 확대” 「조선의오늘」 4월 3일

- 함경북도 ‘김책수산사업소’, ‘성남수산사업소’, ‘로창바다가양식사업소’ 등에서 바다양식 면적을 전년 대비 1.2배 이상 확대

“정다운 부름, <물고기산원>” 「서광」 4월 3일

- 김정은 위원장이 2015년 5월 ‘석막대서양련어종어장’을 방문해 ‘물고기산원’이라고 지칭했다는 일화를 소개

“수족관이 일떠서게 된 사연” 「민주조선」 4월 3일

- 김정은 위원장이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를 방문하여 ‘해양지식보급실’에 수족관 설치를 지시했다는 일화를 소개

“효능높은 양어영양먹이첨가제 개발” 「조선의오늘」 4월 4일

- ‘국가과학원 국가균주보존연구소’에서 닭, 오리 등 가금류의 폐산물을 활용해 양어 먹이첨가제를 개발했다고 보도

“오늘의 시대는 굴함없는 공격정신을 지닌 완강한 실천가를 부른다” 「로동신문」 4월 6일

- ‘남포대경수산사업소’의 사업 성과 소개: ‘보가지’(복어) 10만 마리 방류, ‘쌍선체만능어선’ 제작, 수산물 가공공장 신축

“직하대서양련어종어장 1단계건설 완공” 「로동신문」 4월 13일

- 함경북도에 건설된 ‘직하대서양련어종어장’ 1단계 완공 소식 보도

“수산성아래 서해의 수산사업소들 집중적인 어로전에 일제히 진입” 「로동신문」 4월 14일

- 수산성 소속 서해지역 수산사업소의 어선 200여 척 집중 어로전 개시 소식 보도

“함경북도 수산관리국
사포방류어업사업소에서
태평양연어양어사업 적극 추진”
「메아리」 4월 17일

- 함경북도 ‘사포방류어업사업소’의 태평양 연어 양어 성과 소개

“장연호에 이동식 그물우리양어장
건설”, 「로동신문」 4월 17일

- 함경북도 장연호에 이동식 그물우리(가두리) 양어장 건설 소식 보도

“나날이 더욱 높아가는 인기”
「조선의 오늘」 4월 21일

- ‘성천강출하사업소’에서 생산한 게살 가공품, ‘말린낙지’ 가공품 등이 큰 인기를 끌고 있다는 소식

“축양장 새로 건설”
「로동신문」 4월 22일

- 함경북도에 위치한 ‘고말산대서양연어바다양어사업소’에 2,000 여 m² 규모의 축양장이 새로 건설된 소식 보도

“매일 900여의 다시마 수확”,
「로동신문」 4월 24일

- ‘부포바다가양식사업소’, ‘구미포바다가양식사업소’, ‘웅진바다가양식사업소’ 등 서해지역 ‘바다가양식사업’들의 다시마 수확 성과 소개

“정면돌파전을 추동하는
과학연구사업 활발히 전개”,
「로동신문」 4월 26일

- 최근 과학 연구 사업의 성과를 보도하며 ‘원산수산대학’의 수산 관련 연구 성과 소개

“전국적으로 수많은 그물우리양어장
조성” 「조선중앙통신」 4월 28일

- 평양시 양어관리국에서 약 2만m²의 그물우리(가두리) 양어 시설을 신설하는 등 전국적으로 그물우리(가두리) 양어장이 확대되고 있음

“동해지구 사산단위들에서 자체로
고기배를 제때에 수리”
「메아리」 5월 9일

- ‘신포원양수산연합기업소’, ‘통천수산사업소’, ‘송도원수산사업소’, ‘김책수산사업소’ 등 동해지역 수산사업소의 어선 수리 실적 및 성과 소개

“다시마가득, 기쁨가득 신고”
「로동신문」 5월 11일

- 황해남도 ‘웅진바다가양식사업소’의 다시마 수확 성과 소개

“바다가양식의 과학화에 계속 큰
힘을 넣자” 「로동신문」 5월 11일

- ‘부포바다가양식사업소’의 바다가양식 과학화 성과 소개

“앞당겨 끝낸 모분산작업”
「로동신문」 5월 11일

- 황해남도 ‘구미포바다가양식사업소’의 다시마모 분산작업 기일 단축 성과 소개

“사랑안고 찾으신 양어장”
「로동신문」 5월 15일

- 2015년 11월, 대동강에 새로 건설된 이동식 그물우리(가두리) 양어장을
김정은 위원장이 방문한 사실 소개

“어로전에서 중시하신 문제”
「려명」 5월 16일

- 2015년 5월, 김정은 위원장이 ‘신포원양수산연합기업소’를 방문해 어로
작업의 과학화를 강조한 일화 소개

“그물우리양어에 계속 힘을
넣는다” 「려명」 5월 16일

- 평양시, 남포시, 함경북도 회령시, 김책시 등 전국 각지에 그물우리(가두리)
양어장이 확대되고 있다는 소식 보도

“수산부문에서 바다나물생산에 힘을
집중” 「메아리」 5월 17일

- ‘부포바다가양식사업소’, ‘웅진바다가양식사업소’, ‘구미포바다가양식사업소’ 등 서해지역에서 바다가양식 생산량이 증대되고 있음

- ‘김책수산사업소’, ‘청천수산사업소’, ‘송도원수산사업소’, ‘고성바다가양식사업소’ 등 동해지역에서도 바다가양식 분야에서 성과를 거두고 있음

“우리 원수님과 강원도인민”
「로동신문」 5월 18일

- 강원도에서 자체의 힘으로 원산시에 무궤도전차, 양어장과 갈마바다가양식사업소 등 10여개 중요 건설 사업을 ‘조선로동당’ 창건 75돌(10월10일)까지 마칠 계획으로 추진 중

“물고기가공품의 맛도 보아주시며”
「조선의오늘」 5월 21일

- 2014년 8월, 김정은 위원장의 ‘갈마식료공장’ 방문 일화 소개

“배수리능력을 높이기까지”
「로동신문」 5월 22일

- 함경남도 ‘단천선박공장’의 수리 능력이 확대와 성과 소개

“실천형의 인재양성에 힘을
넣는다” 「내나라」 5월 27일

- ‘남포수산대학’의 교육과정 소개

“각지 수산단위들에서 수백만마리의 새끼 련어, 가재미 방류”
「우리민족끼리」 5월 30일

- ‘신포원양수산연합기업소’, ‘리원수산사업소’, ‘성천강발류어업사업소’ 등에서 련어, 가재미 등 치어 방류 사업에서 성과를 올리고 있음

“갈마바다가양식사업소건설 적극 추진” 「로동신문」 5월 30일

- 강원도 자체의 힘으로 ‘갈마바다가양식사업소’ 건설이 추진되고 있으며, 공정의 70% 돌파

“새끼물고기의 생산성을 높인 비결” 「우리민족끼리」 6월 4일

- 남포수산대학 양어실습장의 연구 성과 소개

“자연먹이를 적극 리용하여”
「우리민족끼리」 6월 4일

- 황해남도 재령군 ‘래림협동농장’ 양어분조에서 곡식 부산물과 콩깍지 등을 활용하여 양어 사료 문제를 해결한 성과 소개

“먼바다만 바라보지 않고
가까운바다에서 더 큰 재부를
창조해간다” 「로동신문」 6월 5일

- 황해남도 ‘가마포수산사업소’의 사업 바다양식 사업 성과 소개

“두만강기슭의 국경도에서
전진하는 사회주의기상을 본다”
「로동신문」 6월 7일

- 라선시의 사업성과를 소개하며, 굴포지역의 해삼 양식장 건설과 ‘라선종어사업소’의 사업 성과 언급

“풍요한 다시마수확을 안아온
바다의 실농군들”
「로동신문」 6월 9일

- 함경남도 ‘경포재배어업사업소’의 다시마 수확 성과 소개

“10만여마리의 새끼명태 방류”
「로동신문」 6월 10일

- 함경북도 ‘고말산대서양련어바다양어사업소’에서 명태 치어 10만 여 마리 방류

“바다에서 칠색송어양어 시작”
「로동신문」 6월 10일

- 함경북도 ‘직하대서양련어종어장’에서 가두리 양식을 통해 칠색송어(무지개송어)를 바다에 적응시켜, 양식에 성공

“일제의 수산자원약탈범죄”

「내나라」 6월 11일

- 일제 강점기 수산자원 약탈 정책과 피해 규모 보도

**“평안남도양묘장과 안주시종어사업소
은어양어기지 준공”**

「로동신문」 6월 15일

- 6월 14일, '안주시종어사업소' 내 '은어양어기지' 준공식 진행

“우량한 새 품종의 붕어 육종”

「조선중앙통신」 6월 18일

- 북한 양어분야 과학자들이 '건잉어'와 '붉은붕어'를 '석붙임'하여 새 품종의 붕어를 육종해 '남강-1호'로 명명

“더 좋은 래일을 위하여”

「내나라」 6월 19일

- '남포대경수산사업소'의 사업 성과 소개

**“새끼해삼의 방류효과를 높이는
방법 연구완성”**

「조선의오늘」 6월 19일

- 함경남도 '호도바다가양식사업소'에서 천적의 피해를 받지 않고 새끼 해삼의 방류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연구·완성

“민물양어에 힘을 넣는다”

「내나라」 6월 20일

- 남포시 진도천 일대에 총부지 면적 4만 여 m² 규모의 양어장 건설

**“정착성물고기들을 대량양어하여
바다수산자원 증식”**

「조선중앙통신」 6월 23일

- 최근 북한에서 명태, 가재미, 넙치, 우럭, 복어 등 10 여 종의 정착성 어종을 인공적으로 키워 치어를 방류하고 있다는 소식

**“양어에 자연먹이를 적극
리용한다” 「내나라」 6월 24일**

- 남포수산대학에서 새끼 물고기의 사료로 '수레벌레'를 이용해 성과를 거둠

“여러모로 좋은 논판양어”

「로동신문」 6월 25일

- 평안북도 룡천군 '양서농장'의 '논판양어' 성과 소개

**“포구엔 다시마향기, 일터엔 혁신의
자랑” 「로동신문」 6월 28일**

- 황해남도 '부포바다가양식사업소'의 다시마 양식 성과 소개

해운항만

“[자력갱생의 창조물들]

로동당시대의 자랑-서해갑문”

「로동신문」 4월 6일

- ‘서해갑문’과 관련한 김일성 주석, 김정일 위원장의 일화를 소개하며, ‘서해갑문’ 건설의 성과와 의미 보도

“조선로동계급의 강毅한 투쟁정신이

낳은 창조물-우리의 첫 대형집배”

「로동신문」 5월 1일

- 1975년 12월, 북한 최초로 대형 화물선 ‘대동강’호(2만t)와 ‘오산덕’호(1만4천t)를 건조한 일화와 성과 소개

“김재룡동지 인민경제 여러 부문

현지료해” 「로동신문」 5월 24일

- 내각 총리 김재룡, 남포항을 방문해 전연병 방역사업 상황 점검

“당이 결심하면 무조건 하는

영웅조선의 본때를 온 세상에

과시한 서해갑문건설자들”

「로동신문」 5월 30일

- 자력갱생의 모범으로 ‘서해갑문’ 건설 과정 소개

“산골학교학생들을 위한 통학배들을

새로 건조, 운영 시작”

「로동신문」 6월 4일

- 자강도 당위원회에서 만포시, 자성군, 동신군, 랑림군, 송원군 산골 학교의 통학용 선박 7척을 건조해 6월 3일 전달식 진행

[북한 알기]

북한의 수산물 수출

진희권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전문연구원)

북한의 수산업은 일제 강점기의 생산시설을 토대로 소련과 중국의 지원 하에 성장

북한은 해방과 함께 일제로부터 몰수한 어항과 대형어선을 국영화해 ‘국영수산사업소’를 설립했으며, 소규모 개인 어민들은 ‘수산협동조합’으로 조직했다. 1958년 수산업 협동화가 완성되며, 북한의 수산업 생산 시설은 ‘국영수산사업소’와 ‘수산협동조합’으로 이원화되었다. 현재 북한 전역에 100 여 개의 ‘국영수산사업소’와 약 300개의 ‘수산협동조합’이 운영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조선인민군 수산사업소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북한의 수산업은 1970년대까지 비교적 빠르게 성장하였으나, 북한의 경제 사정이 악화되며 침체에 빠졌다.

북한의 수산물은 주요한 수출품목 중 하나로 외화획득에서 큰 몫을 차지

1970년대까지 북한 수산물은 주민의 식량과 단백질 공급원으로 큰 몫을 차지했지만 외채 위기 등의 영향으로 북한 경제 사정이 악화되며 외화획득을 위한 수출품목으로 변모했다. 2000년대 북한 경제 회복기에 수산물은 외화획득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였다. 실제로 2003년 북한 전체 수출액 중 수산물의 비중이 37%를 기록하기도 했다. 2000년대 북한 수산물의 주요 수출 국가는 중국과 일본을 뽑을 수 있으며, 남북 경제 협력이 활성화 되었던 2010년까지는 남한 반입량*도 상당했다. 실제로 북한의 남한 반입 물품 중 수산물은 섬유류 다음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2006년 북한의 1차 핵실험 이후 일본이 북한 물품의 수입을 금지하며 북한의 대일본 수산물 수출은 중단되었으며, 이후 남한 반입과 대중 수출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 우리 정부의 5.24조치로 북한 물품의 남한 반입이 사실상 금지되며, 수산물 반입도 중단되었다. 2000년대 중반까지 북한의 수산물 교역국은 중국, 일본, 한국이었으나 2010년 이후에는 사실상 전량 중국으로 수출되었다.

*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남북한 간 교역의 경우 수출, 수입 대신 반출, 반입을 사용한다. 반입이라 함은 매매, 교환, 임대차, 증여사용 등을 목적으로 남한과 북한과의 물품 등의 이동(단순히 제3국을 경유하는 물품 등의 이동도 포함)을 뜻한다.

2017년 유엔대북제재 2371호 채택으로 북한의 수산물 수출 전면 금지

2017년 유엔안전보장이사회는 북한이 화성 14호 로켓을 두 차례 시험발사(7월 4일, 28일)한 데 대한 대응으로 대북제재 2371호를 채택했다. 대북제재 2371호는 북한의 주요 수출품인 석탄, 철광석, 수산물 등의 수출을 전면 금지했으며 해외에 취업한 북한 노동자의 고용을 제한하기로 해, 북한의 외화 수입을 차단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하게 밝혔다. 이와 같은 유엔제재의 영향으로 2018년 이후 북한의 공식적인 수산물 수출은 중단되었다. 하지만 중국을 통한 밀반출, 해상환적 등의 방법으로 불법거래가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대북제재 2371호는 조업권 판매도 금지하고 있으나 2004년 이후 북한은 중국 어선에 지속적으로 동해 어장 입어권을 판매하고 있는 상황이다.

〈표 7〉북한 수산물의 남한 반입액(2001~2010년)

(단위: 백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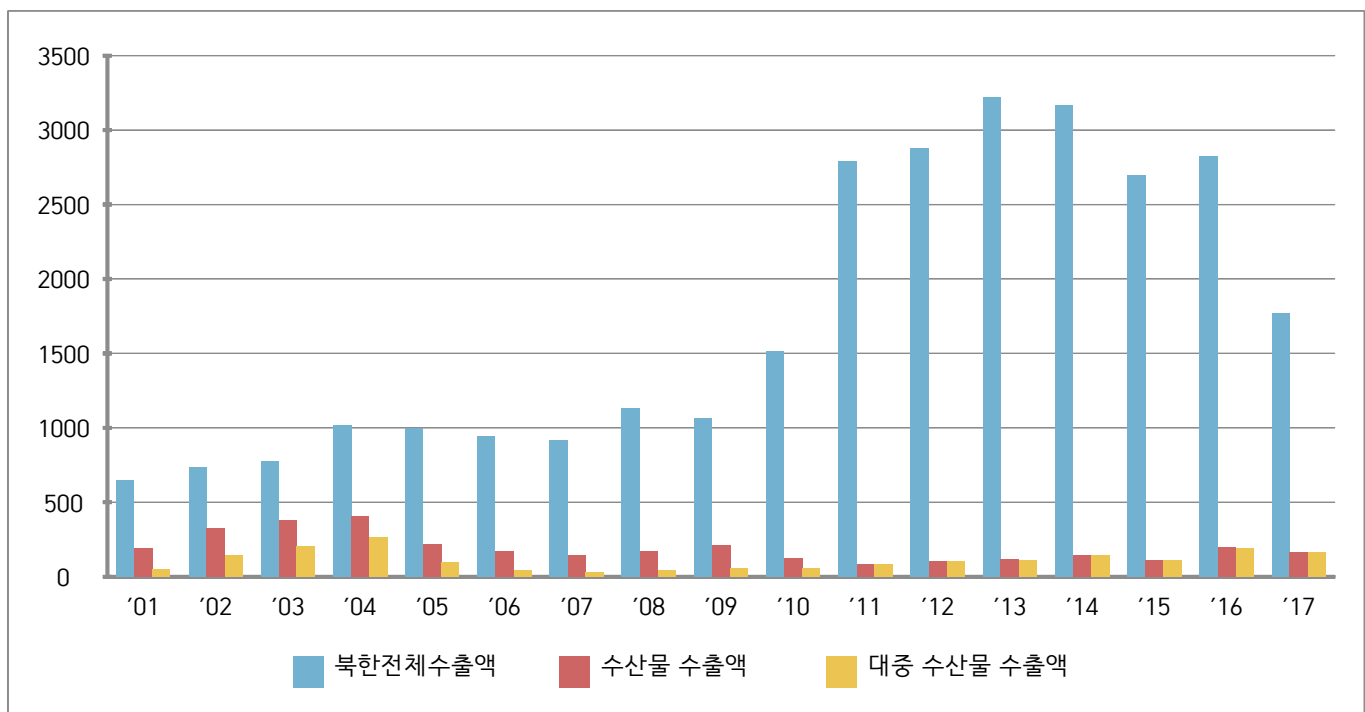
연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반입액	33.7	63.8	90.0	68.2	82.1	101.0	117.0	131.0	148.0	59.0

주: 남한 반입액은 북한 수출액에 포함되지 않음

자료: 통일부, KOTRA 해외시장뉴스, 북한대외무역동향을 토대로 필자 정리

〈그림 15〉 2000년 이후 북한 전체 수출액과 수산물 수출액, 대중 수산물 수출액

(단위: 백만\$)



자료: 통일부, KOTRA 해외시장뉴스, KITA 남북교역·북중무역 동향 비교 등을 토대로 필자 정리

[北 리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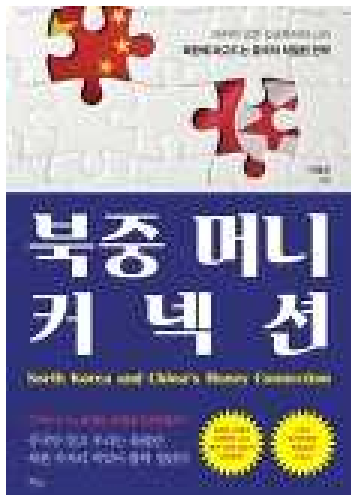
「북한해양수산리뷰」는 북한에 대한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북한 관련 서적을 소개하고자 한다. 이번 호의 주제가 북중무역인 만큼, 북중관계를 주제로 한 책 두 권을 소개한다.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강화는 결과적으로 북중관계를 더욱 밀착하게 만들었고 북한의 대중 경제의존은 거의 절대적인 수준에 이르렀다. 북중관계와 무역에 대한 이해는 오늘날의 북한을 이해하는 데 필수적이다. 그래서 경제 분야와 정치 분야 도서를 각 한 권씩 선정했다. 이 책 두 권이 북중관계의 모든 것을 알려줄 수는 없지만, 독자께서 북한을 이해하는 데 길잡이가 되기를 희망한다.

북중머니 커넥션

이별찬, 책들의 정원, 2020

정주아 (경남연구원 연구원)

“북한의 돈줄은 중국이다”



북한은 어떻게 고강도 대북제재에도 살아남을 수 있을까?

저자는 이 궁금증을 풀기 위해 북-중 접경지역을 누비며 대북 사업가들, 북한 무역상, 현지 주민들을 심층 취재하였다. 이 책은 그 노력과 열정이 고스란히 담겨있으며 그동안 우리가 알지 못했던 북한의 실상을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 저자는 북한이 중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이상, 북한 경제가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서로의 이익을 위해 북-중 관계는 꽤 오래전부터 이어져왔다. 중국은 북한의 내부 발전에 필요한 물자를 공급하고, 밀무역과 북한 노동자 불법 체류를 눈감아주며 외화를 수혈하고 있다. 특히, 접경지역의 중국 도시들이 발전하려면 북·중 경제협력의 필수이기 때문이다.

중국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대북사업 관련 정책을 쏟아내며 향후 북·중경협 확대를 위한 초석을 다지고 있다고 저자는 이야기한다. 중국은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북한과의 경제협력을 계속 이어오고 있지만, 한국은 북한을 정치적으로만 바라볼 뿐 사업적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한국은 2010년 5.24조치 이후 북한과의 경제교류가 대부분 끊긴 반면 중국은 10년 이상 북한과의 경제협력을 이어왔다. 북한은 에너지의 90%, 공산품의 72%, 외부 자본 유치액의 80%를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 북한에는 몰리브덴 같은 희귀 금속을 비롯해 흑연, 증정, 운모, 형석, 은, 철, 납, 아연 등 200여 종의 경제적 가치가 높은 광물들이 매장되어 있다. 그래서 중국은 북한을 돕는 대신 북한의 중요한 광물자원들을 독보적으로 확보해 수입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한국이 북한의 경제파트너로 성장할 가능성은 현저히 낮다. 따라서 한국의 경제교류 확대를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중국의 도움이 필요하며, 중국과의 공동협력을 통해 경제교류의 길을 조금씩 확대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저자는 북한이 성공적인 투자의 마지막 나라가 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으며 전략적으로 한국이 북한의 개방에 대비해 투자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끝으로 저자는 한국이 방관하고 있다가 ‘중국의 북한경제 독점’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다.

한반도 평화와 중국

성균중국연구소, 지식공작소, 2019

정주아 (경남연구원 연구원)

한·중 청년학자들이 바라보는 한반도의 미래와 한중관계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겪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세계경제에 빨간불이 켜졌으며 국가 간 갈등과 대립이 계속해서 확산되고 있다.

한반도 정세는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 큰 이슈가 되기도 하지만 이미 2018년부터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2018년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 이후 남북관계 개선이 급물살을 타면서 한반도는 남북관계, 한미관계, 한중관계, 북중관계가 선순환의 모멘텀을 찾았고 이를 공고화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 왔다.

대표적으로 2018년에 개최된 평창동계올림픽은 남북이 평화협력을 가는 디딤돌이 되었다.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이 순조롭게 선언되며 남북관계가 평화모드로 급격히 개선되었다.

중국의 학자들은 중국이 내놓은 묘책 ‘쌍잡정’과 ‘쌍궈병행’, ‘쌍강화’ 기반으로 각국이 협력하여 난관을 극복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중국 랴오닝대학 국제관계학원 부원장 장둥밍은 “북한의 비핵화 선언과 한미 연합 군사훈련을 중단한다면,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이라는 ‘쌍궈병행’ 로드맵 역시 빠르게 추진되며 한반도 역사의 새로운 한 페이지가 넘어갈 것”이라고 주장한다. 중국의 학자들은 “한반도의 평화는 중국의 동북지방 개발과 북중 간 더 많은 사업적 기회와 성공을 가져다 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반도 문제는 중국과 러시아의 뜨거운 관심을 받아 두 국가 간의 전략적 상호작용이 강화되어 중국, 몽골, 러시아의 협력이 더욱 긴밀해졌다. 시진핑은 러시아에서 개최된 동방경제포럼에 참석해 “중국은 국경을 초월하여 인프라를 상호 연결해서 무역, 투자의 자유화와 간소화를 향상하며 각국 시장·자본·기술 교류를 촉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북한의 비핵화의 전환에 따라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 구상의 범위 또한 중국의 동북부, 러시아 극동지역에서 한반도까지 포함되어 더욱 넓어졌다. 한반도 평화로 가는 길은 조심스러우며 수많은 걸림돌이 남아 있다. 강대국의 관심 또한 많으며, 따라서 외교적 신중함과 섬세함도 중요하다. 특히 지정학, 지경학적으로 한반도 문제의 핵심적인 행위자로 등장한 중국 변수는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으며 한반도 평화로 가는 징검다리이자 디딤돌이라고 볼 수 있다. 이 한 권의 책 속에는 한·중 청년학자들이 바라보는 한반도의 미래와 한중관계가 그대로 녹아있다.

[알려 드립니다]

「북한해양수산리뷰」는 독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 (소)논문, 칼럼 투고
 - 주제: 북한 해양수산 및 남북 해양수산 협력
 - 분량 및 형식: (소)논문의 경우 A4 10매 내외, 칼럼은 A4 2매 내외 이며, 형식은 자유
(단, 게재 시 연구진과 협의 후 조정)
 - 게재 시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합니다.
- 독자의견 및 Q&A
 - 독자의견: 500자 내외의 「북한해양수산리뷰」에 대한 소감, 자유 형식
 - Q&A: 북한 해양수산 및 해양수산 남북협력에 대한 질문, 형식 및 분량 제한 없음
(연구진에서 질문을 선별해 다음 호에 Q&A 코너를 통해 답변)
 - 게재 시 소정의 기념품을 드립니다.

독자 투고 및 의견, 질문 보내실 곳: nkreview@kmi.re.kr